

위니아 법정관리에...광주·전남 가전 협력사 줄도산 위기

광주·전남 300여곳, 납품대금 수백억 못받을 처지 채권단 “금융권·정부·지자체 긴급 금융지원” 호소

경기침체에 지역 가전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니아전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위기감이 깊어진다는 보도(광주일보 2023년 10월4일자 9면)와 관련,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다.

광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등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광주·전남 300여 협력사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 가전업체의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광주·전남지역 가전업체에 따르면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가 지난달 20일 회

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이어 25일 대우플러스, 지난 4일 ㈜위니아가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처럼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만드는 위니아전자와 김치냉장고 ‘탑재’를 생산하는 ㈜위니아 등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서 광주·전남 협력사 등 지역 가전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위니아의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 전자 B2B(아음) 발생으로, 금융권 차입금 411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부터 금융차입금을 협력사에서 대환해야 할

처지로, 이를 갚아가지 못하는 협력사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피해규모는 1차 협력사 150여개사, 2·3차 협력사 300여개사 등 450여개사로 추산된다. 여기에 위니아전자와 대우플러스의 법정관리로 협력사들이 총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지역 가전업체는 예측했다.

이들 협력사의 70~80% 수준인 300여개사(1차 협력사 100개사 이상)가 광주·전남 소재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에도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액은 협력사별로 적게는 5000만원부터 많게는 50억원 상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니아에 플라스틱 원료 등을 납품했던 광주의 한 협력사 대표 A씨는 “올해 처음 위니아 측에 원료를 납품했는데 이런 사태가 터졌다”며 “우리 회사는 24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지역 중소기업에

에 피해가 겹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협력사를 주축으로 꾸려진 ‘위니아 채권단’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위니아 측의 빠른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채권단은 “위니아 법정관리 신청 중 흡소핑에서 판매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는 채권단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위니아에서 채권단에 상황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법정관리 신청 후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 박영우 회장 등 경영진은 밀린 납품대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음만기가 도래해 줄도산 위기”라며 “금융권,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경제에도 호소문을 내고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

섰다.

이날 광주상공회의소는 호소문을 통해 “지역경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전산업 분야 주요 기업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큰 충격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앙 및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300여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기업들은 납품대금의 회수 지연과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자금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난이 심화하고, 이 사태가 길어지면 줄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구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수입 품목 2개 중 1개 ‘중국에 의존’

반도체 희토류·이차전지 등 584개 품목... ‘90% 이상’도 161개...공급망 다변화 필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중국 수출 통제 시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의 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 중 584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603개 품목에서도 중국은 330개로 절반을 넘었고,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역시 301개 중 중국 수입 품목이 161개에 달했다.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로 중국의 공급에 좌우되고 있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튬·스칸듐 포함)은 올 상반기 1570만 달러를 수입했는데, 이 중 79.4%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며 우려를 자아냈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87.6%에 달했다.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시대 안 마련이 마땅치 않은 품목이다.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

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또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의리튬(96.7%) ▲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니켈코발트리튬마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이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패권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념 전향’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산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외교 기조를 실사구시 정점으로 바꾸고, 경제와 산업을 챙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KT, 전국체전 성공 개최 정보통신망 구축

목포종합경기장 등 60곳에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가 제104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목포종합경기장 등 70개소에 대해 진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네트워크와 방송용 전용회선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KT는 이번 전국체전 통신 사업자로서 선수단과 체전 관계자, 관람객들이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경기장과 사무실에 인터넷과 IPTV를 구축한다. 시청자들이 안방에서도 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총 60회선의 방송 전용회선을 구성해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현재 관람석, 화장실 등 주요 온집지역의 원활한 모바일 통신을 위해 무선 품질을 점검하고 2개 경기장에 품질 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개폐막

식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장 메인 행사장에 휴대전화용 중계기를 추가 설치하고 진입로에 이동 기지국 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KT는 행사 기간 동안 주요시설에 전담 요원을 배치해 서비스 장비를 집중 감시하고 전송구간을 이원화함으로써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15년 만에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인들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행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안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국체전은 선수와 임원진 약 3만여 명이 참가하며 목포종합경기장 등 전남 22개 시·군 경기장 70곳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김장 김치 예약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친환경먹거리 브랜드 올가 매장 직원들이 유기농 채소와 액젓 등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11월 5일까지 김장 김치 사전예약 접수를 한다. 사전예약 기간 중 신청한 김장김치는 11~12월 중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수령 가능하며 절임배추, 김치 양념소, 고춧가루 등도 예약 주문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자산 1천억 이상 지역 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 관리받는다

신협,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5천만원까지 별도 보호

앞으로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선거관리를 도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신협의 경우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

협동조합법이 개정된 바 있다.

금융위는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지역신협의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 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

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세마을금고,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 다.

연금저축공제·사고공제금 별도 한도 보장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연합뉴스

국민 빚 476조...20·30대 134조 육박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신규 부채 1.5배 늘어... ‘빚투’ 293조

최근 1년간 국민이 진 빚이 4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 부채도 134조원에 육박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올해 7월 5대 은행 및 6대 증권사의 담보·신용대출·주식융자 신규 취급액은 476조938억원에 달했다.

신규 부채는 작년 대비 올해 1.5 배 가량 늘었다. 대출과 주식 신규 취급액은 작년 하반기 186조3494억원이었으나 올해 1~7월 289조7444억원으로 103조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60조7759억원에서 101조694억원으로 증가했고, 주식 신용거래 또한 102조5914억원에서 151조2781억원으로 신규 차용금이 늘었다.

조사 대상 5대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고 6대 증권사는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키움, 메리츠 증권이다.

신규 부채 중에서는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에 293조원 넘게 몰렸다.

증권사에서 현금이나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신용거래 취급액은 253조8695억원, 주식 대금 결제일까지 시차를 활용해 외상으로 투자하는 미수거래도 39조1561억원이었다.

주택 관련 자금 대출도 크게 늘었다.

작년 7월 이후 1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161조8453억원이었다. 여기에 신용대출 21조 2230억원을 포함하면 1년여간 내 집 마련을 위

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183조원이 넘는 대출금이 동원된 것이다.

청년층인 20·30세대도 적지 않은 빚을 냈다.

작년 7월부터 1년간 청년이 낸 빚은 133조 8093억원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은 한 해 동안 75조460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8조4888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주식 신용거래는 46조890억원, 미수거래 3조7709억원으로 빚투를 위한 부채 또한 적지 않았다.

신규 대출액이 늘면서 연체액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1조1764억원이었던 연체액은 올해 7월 1조7474억원으로 571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4069억원의 연체액이 늘었고 주식 신용융자에서 779억원 증가했다.

20·30세대에서도 같은 기간 연체액이 1416억원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2.58(-6.15)
↓ 코스닥	795.00(-21.39)
↓ 금리(국고채 3년)	3.997(-0.018)
↓ 환율(USD)	1349.50(-0.40)